자연·佛法·인간은 '如一'… 지혜의 언어로 말하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① 중국 소동파 詩選

소동파(1036~1101)는 대표작 〈적벽부(赤壁賦)〉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시인이다. 당대의 시들이 서정시 일변도인데 비해 그의 시는 철학성이 깊어 새로운 시의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그의 시 2700여 편 중 많은 시편들이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후기에 들어 시의 간명성으로 태공선객(太空禪客)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즉 참선수행의 소산인 선시(禪詩)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소동파는 28세에 왕팽거사를 만나 불법을 접하게 된다. 그 후 20년 쯤 지난 47세에 선리(禪理)에 눈을 뜨고 개오(開悟)하게 된다. 이 시기가 황주로 유배를 간 시기(45세~49세)이다. 소동파는 삶의 20년간을 유배살이를 했다. 이를 통해 그는 큰 깨달음을 지닌 선사들로부터 선(禪)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 황주 유배 생활이 끝나는 49세 때 여산 호계(廬山虎溪)의 폭포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 오도송이 '동림계성(東林溪聲)'이다.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說)
계곡물소리는 부처님의 긴 설법이며
산색기비정정신(山色豈非情淨身)
어찌 산색은 청정광명의 법신이 아니겠는가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밤에 팔만사천 게송이 들어오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다른 날, 어떻게 들어 보일 것인가

-소동파의 7언 절구 '동림계성(東林溪聲)' 전문

오도송이나 게송인 선시를 해석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풀이함으로써 오히려 그 '선미(禪味)'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어는 언어 이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본질 그 자체의 언어이기 때문에 군말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시를 불교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선시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7언 절구 '동림계성(東林溪聲)'의 첫 구에서 소동파는 여산호계(廬山虎溪)의 폭포소리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설법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산의 색깔, 빛으로 인식하며, 2구에서 자연의 청결한 모습으로 인식한다. 또한 3구에서는 낮이 아닌 밤에 게송의 언어로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시인의 마음을 표출하며, 그리고 다른 날 즉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올 중생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들려줄 것인가를 고뇌한다. 이것이 이 시를 조야하게나마 살펴 본 내용이다.

이 선시에서 소동파는 깨달음의 언어를 계곡물소리로 표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의 빛과 색깔로 인식한다. 그것은 이 시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친화적 상상력의 소산으로 자연과 불법과 인간이 여일(如一)하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나아가서는 만물의 불성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지혜의 언어이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소동파는 중년에 들어 황주에 유배되어 삶의 본체를 천착하게 된다. 그 때의 그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가 〈지미(知迷)〉이다. 이 선시는 인간의 미혹함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이 시는 5언 율시로 소동파가 유배 중인 47세에 쓴 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난 삶의 회한으로 고뇌하던 시대에 쓴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중년첨문도(中年 忝聞道)
중년에 들어 그때서야 불도를 듣게 되어
몽환강이상(夢幻講已祥)
이미 칠정몽환설을 자세하게 들었으나
저약여구산(儲藥如丘山)
(치료)약을 선더미처럼 쌓아 놓고
임병갱구방(臨病更求方)
병이 들면 다시 처방을 구한다
잉장은애인(仍將恩愛刃)
장차 은혜와 사랑의 칼로
할차쇠노장(割此衰老腸)
이 노쇠한 창자를 자르고 있구나
지미욕자반(知迷欲自反)
미혹 벗어나고자 한 마음 이런 줄 알겠으나
일통송여상(一慟送餘傷)
크게 한바탕 울고, 묵은 상처 보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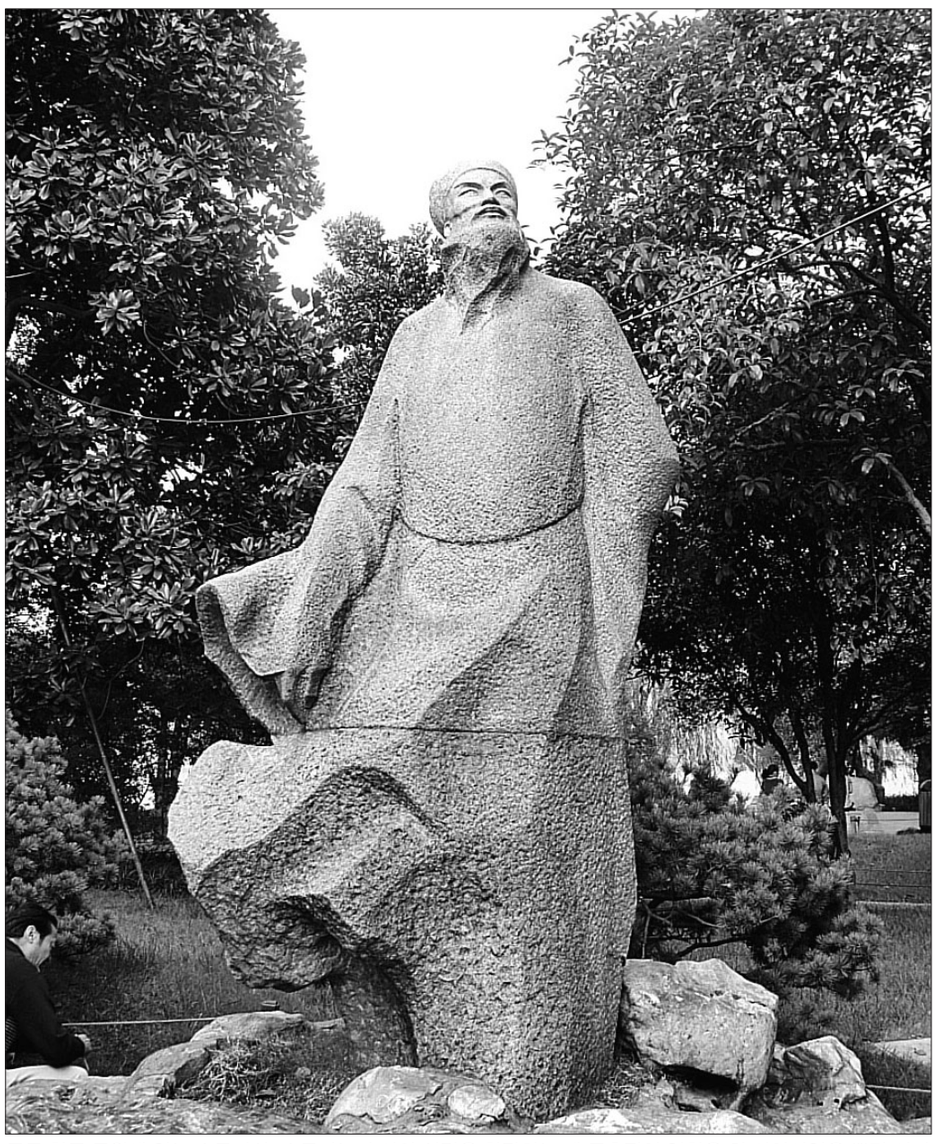
-소동파의 5언 율시 '지미(知迷)' 전문

소동파의 5언 율시인 위의 '지미(知迷)'에서는 우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몽환 같은 '칠정(七情)'을 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칠정은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경(驚), 공(恐)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고유한 마음이다. 그러나 이 칠정은 인간의 마음에 병이 된다. 이를 인식하고 치료해야 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을 곁에 쌓아놓고도 병이 들면 처방을 찾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인간의 습(習)을 환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칠정으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한바탕 통곡하고 그 칠정의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는 지혜의 언어를 소동파는 이 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5,6구인 "잉장은애인(仍將恩愛刃, 장차 은혜와 사랑의 칼로), / 할차쇠노장(割此衰老腸, 이 노쇠한 창자를 자르고 있구나)"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독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은애인(恩愛刃)'과 '쇠노장(衰老腸)'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칠정에서 비롯된 정서일 수도 있고, 그와는 다르게 불교의 자비(慈悲)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칼이라는 의미의 인(刃)을 붙임으로 해서 은혜와 사랑이라는 마음이, 칼이라는 방편이 될 수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혜와 사랑'은 한낱 불교적 방편인 셈이다.

또한 그 칼로 자신이 '노쇠한 창자'를 자르고 있다는 것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쇠한 창자'는 병(病)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의 미혹(迷惑)을 표상한다. 그렇다고 할 때, 은혜와 사랑=자비는 미혹의 마음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칼'처럼 남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될 때, 노쇠한 창자는 더욱 깊어지는 병이 될 것이다. 은혜와 사랑이라는 인간의 정서는 선적(禪的) 차원에서는 끊어내야 할 미망(迷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동파의 선시 '지미(知迷)'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시는 그 시어들이 표상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어쩌면 소동파는 시인으로서 알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구한 소동파는 시인이이기도 하지만 선객(禪客)이다. 선 수행을 통한 게송을 하는 선승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시가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과 '무하유(無何有)'다.



중국 항주 공원에 있는 소동파상. 소동파는 송시의 성격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가였고 중국문학사상 처음으로 호방사(豪放詞)를 개척한 호방파의 대표 사인(詞人)이었다. 그는 또 북송사대가로 손꼽히는 유명 서예가이기도 했고 문호주죽파(文湖州竹派)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중국 문인화풍을 확립한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생애 20년을 유배지서 보내며
불교 禪의 이치 배우고 깨달아
후기 시조 가면서 '禪味' 고취
5언율시 '지미' 선 칠정 비워냄을
'동림계성'엔 만물 불성의 開悟가
새로운 시문학 지평 연 선각자

우세동파월색청(雨洗東坡月色淸)
비에 씻긴 동파, 달빛 맑고 맑으니
시인행진야인행(市人行盡野人行)
도시 사람 다 떠나고 야인만 다니는 게 보이네
막염락학파두로(莫厭犖 确頭路)
언덕 싫어 않고 얼룩소 자갈길 개간하며
자애경연비장성(自愛鏡硏枇杖聲)
비파나무지팡이 끄는 소리 비추어 스스로 좋아하노라

-소동파의 7언 절구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 전문

위의 절구에서의 '동파'는 시적 자아인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빗물에 씻은 시적 자아를 1구에서는 '월색청(月色淸)' 즉 맑은 달빛으로 은유한다. 자연과 하나가 된 시인. 그 시인과 자연과 함께 사는 자연인만이 남고, 도시 사람은 떠나간 마을. 그 마을은 적요하다. 그 마을은 맑은 달빛만 내려앉은 마을이다. 그 마을은 언덕길 까지도 얼룩소와 함께 개간한 적막하나 평화로운 마을이다. 그곳을 시인은 좋아한다. 비파나무로 만든 지팡이 끄는 소리까지도 시인은 사랑한다. 이것이 '동파비장성(東坡枇杖聲)'이다. 지팡이 소리를 소동파는 선승의 법문 시, 내지르는 할(喝)로, 선원에서 학인(學人)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그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파나무 지팡이 소리는 깨달음의 소리인 것이다.

문아하처래(問我河處來)
어느 곳에서 왔냐고 물으면
이래무하유(我來無何有)
나는 무하유에서 왔다고 말하리
훈풍자남래(薰風自南來)
훈풍이 남쪽에서 스스로 불어오니
초당생미량(艸堂生微凉)
처마 끝에 미미한 서늘함이 생겨나네

-소동파의 5언 절구 '무하유(無何有)' 전문

무하유(無何有)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이라는 말로 "아무 것도 없는 곳", "어떤 것도 없는 곳"이란 의미이다. 이 말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말로 선악과 시비와 경계가 없는 곳으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며 진심(眞心, 참마음)이 있는 본래의 그 자리를 의미한다. 누군가가 시인 자신에게 "어느 곳에서 왔는가"를 물으면 "무하유(無何有)"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남쪽에 훈풍이 불어오면 처마 끝에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녹아, 견딜만한 서늘함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그 계절의 모습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노래이다.

불교의 마음은 걸림이 없는 마음이다. 7언 절구 '산중고승(山中高僧)'의 초연한 노승처럼, 객이 돌아간 "차담(茶啖) 파한 자리"에 '검귤과 양매(楊梅)의 신맛'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노승의 책상 위에 〈능엄경〉을 보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불교의 마음이다.

소동파의 사상은 유가(儒家)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도가사상과 불가사상에 심취하여 폭넓은 사상과 다양한 작품을 보여준 시인이다. 사상의 도구로써의 시가(詩歌)가 아닌 자연스럽게 사상을 수용한 시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말년에 불교시가로서의 선시풍(禪詩風)이 다분한 몇 편의 절구와 율시를 우리는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해서 선비 시객(詩客)으로서 문학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불교적 모티프를 자신의 시속에 자연스럽게 스미게 해서, 선시의 새로운 문학지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동파의 시를 다시 읽게 된다.



유한근
문학평론가 · 디지털서울문예대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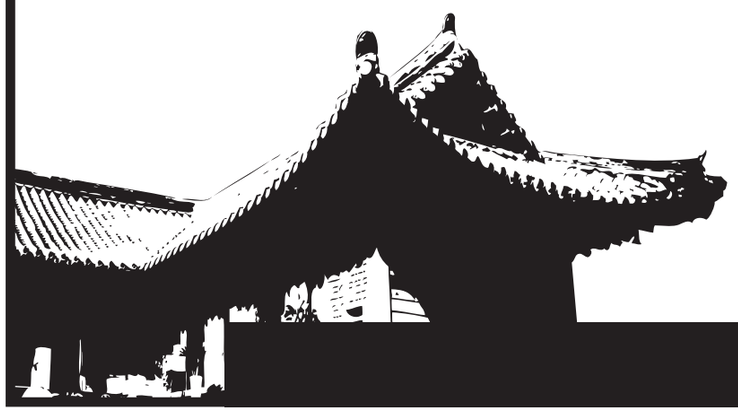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